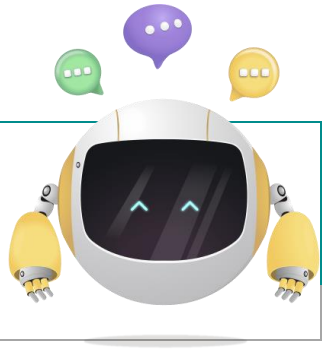
Tech&Stock Weekly

2026.04.10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빅테크-원전 연계 지속과 핵심광물로서 중요성 증가한 우라늄

AI&보안

앤스로픽의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PANW, CRWD 주요 파트너사로 참여

- 4월 7일 앤스로픽은 클로드 미토스를 방어 목적으로 우선 활용해 세계 핵심 소프트웨어 인프라의 취약점을 탐지, 보완하고자 주요 테크 기업 12개로 구성된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론칭
- 참여 기업이 미토스 프리뷰를 먼저 적용하고 앤스로픽이 학습 결과를 업계와 공유하고, 참여 기관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구조.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표 테크 기업으로 구성된 12개의 파트너사에 팔로알토(PANW)와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WD)가 포함

글로벌 에너지

[호르무즈 대란] 최상위 가치는 에너지 전환에서 '에너지 안보'로. 모든 에너지원이 귀해진다

- 각국의 에너지 안보를 능동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각자도생의 시대 도래. Energy Transition보다 'Energy Addition 혹은 Expansion'으로
- 글로벌 No.1 Electro State 중국의 에너지 자립 스토리는 대표적 케이스 vs. 글로벌 No.1 Petro State 미국의 Energy Dominance 여정 강화 예상
-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에너지원이 없다. 'All-of-the Above' 전략의 필요성 재차 강조

AI/플랫폼

알파벳(GOOGL.US): Gemini 3 기술 기반 오픈모델 Gemma 4 출시

- 구글 딥마인드가 4월 2일 자사 최강 오픈 모델 Gemma 4를 공개. Gemini 3과 동일한 연구 기반에서 파생된 네 가지 변종(E2B, E4B, 26B MoE, 31B Dense)으로 구성되며, 31B 모델은 Arena AI 텍스트 리더보드 오픈모델 3위(Elo 1452), 26B MoE는 6위를 기록

애플(AAPL.US): 에픽게임즈 분쟁을 대법원으로 재상정

- 애플이 에픽게임즈와의 App Store 수수료 소송에서 항소법원의 패소 판결(2025년 12월)에 대한 재심리 요청마저 2026년 3월 기각당하자, 미 연방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계획을 밝힘

메타(META.US): 메타·구글, Section 230 우회 소송 잇따른 패소

- 1996년 제정된 Communications Decency Act Section 230은 플랫폼이 제3자 콘텐츠에 대해 퍼블리셔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해온 미국 인터넷 산업의 핵심 법적 방패. 하지만 최근 LA 주법원 배심 평결에서 메타와 구글(유튜브)이 잇따라 패소하며 이 방패에 실질적 균열이 발생

오픈AI(비상장): 오픈AI·앤스로픽·구글, 중국의 AI 모델 무단 복제에 업계 공동 대응 착수

- 오픈AI, 앤스로픽, 구글이 2023년 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 설립한 비영리기구 Frontier Model Forum을 통해 중국 AI 기업들의 adversarial distillation(적대적 증류) 공격에 대한 위협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

앤스로픽(비상장): Claude Code 구독자의 OpenClaw 등 서드파티 도구 사용에 별도 과금 전환

- 앤스로픽이 4월 4일부터 Claude Code 구독자가 OpenClaw 등 서드파티 harness를 통해 사용하는 분량을 기존 구독 한도에서 분리하고, pay-as-you-go 방식으로 별도 과금하기 시작

AI&보안

앤스로픽의 사이버보안 프로젝트 시사점

앤스로픽의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PANW, CRWD 주요 파트너사로 참여

- 4월 7일 앤스로픽은 클로드 미토스를 방어 목적으로 우선 활용해 세계 핵심 소프트웨어 인프라의 취약점을 탐지, 보완하고자 주요 테크 기업 12개로 구성된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론칭
- 참여 기업이 미토스 프리뷰를 먼저 적용하고 앤스로픽이 학습 결과를 업계와 공유하고, 참여 기관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구조.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표 테크 기업으로 구성된 12개의 파트너사에 팔로알토(PANW)와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WD)가 포함

사이버보안 관점에서 시사하는 점

- 1) AI 기업이 기존 사이버보안 사업자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오히려 핵심 보안 통합 사업자를 중심으로 AI 기업과 파트너십이 결성되고, 보안 통합 플랫폼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진다는 점을 시사. LLM 기반 보안이 기존 보안 사업자 대비 제공하지 못하는 요소에 주목하며, LLM과 보안업계의 대립이 아니라 AI를 방어 솔루션 안에 누가 가장 빠르게 통합하는가가 중요
- 2) AI 진화는 공격 기술 발전과 가속화를 초래하기에 기업의 방어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수이며 전체 IT 지출에서 보안 비중 상승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 보안 수요 상승 속에서 AI를 가장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AI 보안 포트폴리오를 가장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CRWD와 PANW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
- 3)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참여한 12개 기업의 면면을 보면 현시대 가장 대표적인 테크 리더들이. PANW와 CRWD가 여기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두 기업이 AI 보안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줌

CEO 장내매수 & 자사주 매입 한도 확대, AI 기반 성장에 대한 자신감 시사

- AI로 인한 경쟁 논리가 상존하기에 AI 신모델이나 보안 툴에 대한 발표 자체가 사이버보안 주식의 단기 변동성을 자극하는 헤드라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
- 그러나 1) AI 도입 가속화로 주력 분야 수요 확대, 2) 통합 플랫폼 사업자의 구조적 해자 유효, 3) AI 보안 포트폴리오 경쟁력을 고려하면 CRWD와 PANW가 보안 시장 확대 국면에서 점유율 상승을 통해 양호한 성과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 됨
- 최근 CRWD의 자사주매입 한도 확대와 PANW CEO의 장내매수는 양사가 현재 주가 수준을 중장기 성장 잠재력 대비 매력적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

글로벌 에너지

[CERAWeek 2026 참관기] Reshaping the Energy Map: 호르무즈, 그 이후

[호르무즈 대란] 최상위 가치는 에너지 전환에서 '에너지 안보'로. 모든 에너지원이 귀해진다

- 각국의 에너지 안보를 능동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각자도생의 시대 도래. Energy Transition보다 'Energy Addition 혹은 Expansion'으로
- 글로벌 No.1 Electro State 중국의 에너지 자립 스토리는 대표적 케이스 vs. 글로벌 No.1 Petro State 미국의 Energy Dominance 여정 강화 예상
-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에너지원이 없다. 'All-of-the Above' 전략의 필요성 재차 강조

[전통 에너지] 중기적으로 높은 가격 유지 전망

- 타격 받은 중동 내 주요 에너지 인프라의 정상화에 시간 필요. 향후 비축유 재구축을 비롯한 재고 확보 움직임 예상
- 유정의 완전 정지 시에는 정상화까지 보통 2~3주, 대규모 유전은 4~5주 걸려. 가동이 완전히 멈춘 유정은 부식과 왁스 축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 항만 적체도 문제. VLCC 왕복 항차 사이클 38~45일 감안 시 폐쇄 기간 40일 이상이면 반복 병목 구조로 전환. 정상화 시간 비선형적으로 증가
- 유가 및 가스가격은 급격한 하락보다 완만한 안정화 예상. 클린테크에 대한 관심과 자본투자, 밸류에이션 상향 기대

강화된 빅테크와 원전/SMR의 연계 (AI for Nuclear)

- CERAWeek 2025 에서 빅테크(아마존, 구글, 메타)는 다우, 옥시덴탈 등과 COP28(2050년까지 원자력 용량 3배 확대 목표)에 서명
- CERAWeek 2026 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AI for Nuclear" 파트너십 체결. "A Digital Age for Nuclear: Aalo Atomics, NVIDIA, and Microsoft" 세션에 에너지부 장관도 참여해 Reactor Pilot Program 11개 프로그램에 포함된 3개의 원자로가 원자력 행정명령에 따라 '26년 7월 4일까지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언급
- 정책 모멘텀도 지속되는 중. '26년 5월 4건의 행정명령 이후, '26년 3월 는 기존 원전의 출력 증강 및 재가동, 중단된 프로젝트 완료를 통해 원전 용량 확대를 추진하는 UPRISE 이니셔티브 발표. 현재 재가동 예정된/언급된 원전은 총 4기
- 규제를 담당하는 NRC는 빠른 인허가를 지원하는 동시에 첨단원자로에 대한 신규 규칙 제정하는 중. '26년 3월 Part 53 승인했으며 10년만에 처음으로 상업용 원자로인 테라파워의 Kemmerer 1호기 건설 허가 승인
- 2026년은 X-Energy 와 홀텍인터네셔널의 IPO 예정. 두산에너빌리티/DL이앤씨/한수원 등 주요 공급망 파트너로 참여

핵심광물로서 중요성 증가한 우라늄 주목

- '26년 1월 DOE는 American Centrifuge Operating, General Matter, Orano Federal Services 각 기업이 농축 우라늄 캐파를 확장하는데 9억달러씩 총 27억 달러 지원 계획 공개. 차세대 원자로와 SMR 필수 연료인 HALEU 생산에 초점
- 와이오밍 주는 BWXT의 TRISO 연료 공장에주정부 자금 1억 달러 지원책을 공개
- 다만 업스트림보다는 미드스트림 재건에 집중되고 있어 미국의 우라늄 실물 자급도는 여전히 낮은 편

AI/플랫폼

알파벳(GOOGL.US): Gemini 3 기술 기반 오픈모델 Gemma 4 출시

- 구글 딥마인드가 4월 2일 자사 최강 오픈 모델 Gemma 4를 공개. Gemini 3과 동일한 연구 기반에서 파생된 네 가지 변종(E2B, E4B, 26B MoE, 31B Dense)으로 구성되며, 31B 모델은 Arena AI 텍스트 리더보드 오픈모델 3위(Elo 1452), 26B MoE는 6위를 기록
- E2B·E4B 엣지 모델은 추론 시 각각 실효 20억·40억 파라미터만 활성화해 스마트폰 등 엣지에서 오프라인 구동이 가능하고, 텍스트·이미지·오디오 멀티모달을 지원함. 대형 모델은 최대 256K 컨텍스트 윈도우 등 agentic workflow를 기본 탑재해 자율 에이전트 개발에 최적화

애플(AAPL.US): 에픽게임즈 분쟁을 대법원으로 재상정

- 애플이 에픽게임즈와의 App Store 수수료 소송에서 항소법원의 패소 판결(2025년 12월)에 대한 재심리 요청마저 2026년 3월 기각당하자, 미 연방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계획을 밝힘
- 쟁점은 애플이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하면서도 부과한 27% 수수료로, 항소법원은 이 수수료가 외부결제 허용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한다고 판단. 애플은 27%가 단순 결제 처리 비용이 아닌 호스팅·디스커버리·개발자 도구 등 생태계 가치에 대한 대가라는 논리를 대법원에서 관철시키려 하나, 이전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한 전례가 있어 수리 가능성은 불확실

메타(META.US): 메타·구글, Section 230 우회 소송 잇따른 패소

- 1996년 제정된 Communications Decency Act Section 230은 플랫폼이 제3자 콘텐츠에 대해 퍼블리셔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해온 미국 인터넷 산업의 핵심 법적 방패. 하지만 최근 LA 주법원 배심 평결에서 메타와 구글(유튜브)이 잇따라 패소하며 이 방패에 실질적 균열이 발생
- 원고 측 변호사들은 Section 230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대신, 알고리즘 추천·중독적 플랫폼 설계 등 플랫폼의 능동적 설계 결정이 제3자 콘텐츠 호스팅이 아닌 독립적인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우회 논리를 개발해 면책 적용 범위 밖으로 소송을 끌어냄. 현재 메타·구글·스냅·바이트댄스를 상대로 연방·주 법원에 걸쳐 2,400건 이상의 청소년 정신건강 피해 소송이 병합 진행 중

브로드컴(AVGO.US): 구글 차세대 TPU 5년 장기계약 + 앤스로픽 3.5GW 컴퓨트 공급 확대

- 브로드컴이 SEC 공시를 통해 두 건의 대형 딜을 동시 발표. 첫째, 구글과 차세대 TPU 설계·공급 및 데이터센터 네트워킹 부품을 2031년까지 포괄하는 장기계약(Long Term Agreement)을 체결해 2016년부터 이어온 TPU 공동개발 파트너십을 한 단계 격상. 둘째, 앤스로픽에 구글 TPU 기반 약 3.5GW 규모의 AI 컴퓨트 용량을 2027년부터 공급하는 확대 계약을 확정

테슬라(TSLA.US): NHTSA, 테슬라 Actually Smart Summon 조사 종결

-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2025년 1월 수십 건의 충돌 보고를 계기로 개시했던 테슬라의 원격 주차 기능 Actually Smart Summon에 대한 조사를 종결
- 2024년 9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배포된 이 기능은 카메라만으로 차량이 저속 자율주행해 사용자에게 이동하는 방식인데, 수백만 건의 Summon 세션 중 사고 발생 비율이 1% 미만이었고, 대부분 게이트·주차 차량·볼라드 등과의 경미한 물적 피해에 그쳤으며 보행자 사고·부상·사망·에어백 전개·견인 사례는 보고되지 않음

오픈AI(비상장): 오픈AI·앤스로픽·구글, 중국의 AI 모델 무단 복제에 업계 공동 대응 착수

- 오픈AI, 앤스로픽, 구글이 2023년 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 설립한 비영리기구 Frontier Model Forum을 통해 중국 AI 기업들의 adversarial distillation(적대적 증류) 공격에 대한 위협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
- Adversarial distillation은 프론티어 모델에 대량의 자동화된 프롬프트를 보내 출력을 수집한 뒤, 이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해 저비용 복제 모델을 훈련시키는 기법으로, 미 당국은 이로 인한 미국 AI 기업들의 연간 손실이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
- 앤스로픽은 올해 초 딥시크, Moonshot AI, MiniMax 등 중국 3개사가 약 24,000개의 위장 계정을 통해 Claude에서 1,600만 건의 비인가 교환을 수행했다고 적시했고, 오픈AI도 의회에 딥시크의 free-riding을 경고하는 메모를 제출. 구글 역시 Gemini의 추론 역량을 겨냥한 10만 건 이상의 모델 추출 시도를 탐지·차단했다고 공개

앤스로픽(비상장): Claude Code 구독자의 OpenClaw 등 서드파티 도구 사용에 별도 과금 전환

- 앤스로픽이 4월 4일부터 Claude Code 구독자가 OpenClaw 등 서드파티 harness를 통해 사용하는 분량을 기존 구독 한도에서 분리하고, pay-as-you-go 방식으로 별도 과금하기 시작
- Claude Code 책임자 Boris Cherny는 기존 구독 요금 체계가 서드파티 도구의 사용 패턴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며 지속가능한 성장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4월 10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현)는 2026년 4월 10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